

탈북청소년 연구 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 ▶ 일시: 2013년 4월 9일(화) 10:30 - 12:00
- ▶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콜로키움

■ 연구진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최현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발표자

윤혜순(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일정표

- | | |
|--------------------------------|---|
| <input type="checkbox"/> 개 회 | 10:30 - 10:40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nput type="checkbox"/> 주제 발표 | 10:40 - 11:20
탈북청소년 연구 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발표자 윤혜순(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 <input type="checkbox"/> 질의응답 | 11:20 - 11:50 |
| <input type="checkbox"/> 폐 회 | 11:50 - 12:00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목 차

주제 발표

탈북청소년 연구 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질의응답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



탈북청소년 연구 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윤혜순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탈북청소년 연구 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1. 탈북청소년 관련연구 동향

2000년대부터 한국사회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가족단위 입국이 많아짐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실태를 밝히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탈북청소년은 탈북으로 인해 생겨난 외상, 학교 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양육결핍,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순조롭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응에 초점을 두고 심리·정서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이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북청소년들이 어떻게 적응해가고 변화해 가는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한만길 외, 2010 : 이향규·이강주·김윤영·한만길·김성식, 2011 : 홍순혜·김선화·이숙영·윤지혜, 2011)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탈북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한사회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온 연구들을 심리·정서적 적응, 학교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탈북청소년들의 사회통합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심리·정서적 적응

탈북청소년들은 입국 전 즉,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경유지인 제3국에서의 삶,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으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과정에서 생겨난 상흔이

입국한 후 적응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외상경험 실태, 외상이 남한 입국 이후 정신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순형 외, 2007; 김윤나, 2008; 윤지혜·오영림, 2010). 또한 외상이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비롯한 남한사회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입국 후에도 불안, 소외감, 소속감 결여 등으로 인해 외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탈북 전이나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이 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입국한 후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탈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새롭게 겪게 되는 외상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연구도 있다(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220-235; 백혜정, 2006; 한만길 외, 2009).

김윤나(2008)는 상흔이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흔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성장의 힘이 커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탈북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유형과 적응유연성을 파악한 후에 문화통합 유형으로 분류된 12명의 탈북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해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유연성과 강화과정을 분석했다. 이순형 외(2007)도 외상으로 인한 부적응과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즉 내면의 힘을 살펴봄으로써 외상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학교 적응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해서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령기에 있기도 하지만,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배우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재사회화 기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으로 인해 생겨난 외상 외에도 학교에서 남북한의 심각한 교육 격차로 인해 학업성취의 어려움, 북한과는 다른 수업분위기, 입시 경쟁, 개인주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기영, 2001;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220-224; 한만길 외, 2009).

학교 적응과 관련한 연구 중에서도 학업부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비중이 가장 크다. 탈북청소년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즉, 성별, 제3국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성적, 보호자의 직업 지위, 내재적 학습동기, 신분상승 동기, 협력적 학습상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은 학습동기유발을 위한 교육적 지원, 협력학습 환경 조성, 방과후 보충수업 및 상담교사 배치, 지역사회 학습지원 활용, 편입학 기준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김미숙,

2005). 탈북청소년들은 학업성취 수준이 매우 낮고, 학업지체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해진다. 학력 격차를 보이는 과목은 입국초기에는 국어 과목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학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부진이 누적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기초학력 부진이 해결되지 않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김미숙, 2005; 한만길 외, 2009).

이러한 학교 부적응과 학력격차 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병오는 공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탈북청소년들의 상황에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고 준비되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최경자(2008)는 탈북청소년의 학습적응력신장을 위해 기존의 학교 외적으로 접근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알맞은 학습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 외에도 과학 과목(박명숙, 2006), 사회과목(박하나, 2007)등 교과목별 교육 실태와 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학교에서의 학교 적응실태와 부적응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위한 모색에서 나아가 2003년부터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디딤돌 기능을 하는 특성화학교의 필요성과 모형이 제시되었다. 2004년에는 교육부의 전환기 학교 또는 디딤돌 학교로서 역할을 하는 학교 설립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교육지원체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2003년과 2004년에 이루어진 특성화학교 설립계획은 2006년에 한겨레 중·고등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디딤돌, 전환기로서의 성격은 퇴색되고 탈북청소년들이 일반학교 학생들과 분리된 상태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며 졸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시 도시형 특성화학교 설립문제가 제기되어 2008년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오명도 외, 2008).

일반학교의 대안으로서 모색된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와 관련된 연구 외에도 탈북청소년의 부적응에 이어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중도탈락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북한과의 교육차로 인한 학습지체,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 정서적 고립감, 교육과정 미비, 전담하는 전문교사 및 제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이태주·김도혜·윤상석, 2010).

중도 탈락한 학교 밖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워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탈북청소년은 ‘학업을 자포자기 한 채 살아가는 위기청소년이자 사회 부적응청소년’이라는 시각보다는 ‘학교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탈락 즉,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이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와 학교 밖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등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이태주·김도혜·윤상석, 2010).

서승희(2010)는 그동안 다양한 교육지원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의 적응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전환교육 모형을 통해 적응방안으로 모색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전반적인 사회 적응 혹은 부적응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학업지원만이 아니라, 시설 내 보호 지원 교육체계 개선방안,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 진출 후 지원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길은배·문성호, 2003). 나아가 탈북청소년의 진로교육 실태와 진로지도를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김경준·정병호·김찬호, 2008).

3. 사회·문화 적응

학교 부적응은 탈북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과 자아상 혼란을 초래하고 대인관계 부적응 등을 가져오기도 한다(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탈북청소년이 학교를 비롯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 후원자, 또래관계 등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이기영, 2001; 김미숙, 2005; 박윤숙, 2006; 백혜정 외, 2006; 한만길 외, 2009). 특히, 가족의 지지는 학교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홍순혜 외, 2003; 김형태, 2004; 한만길 외, 2009) 그러나 부모의 지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만, 역기능일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즉, 가족관계의 부정적 경험 즉, 가부장적 권위, 남존여비사상, 부모 갈등 등이 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이기영, 2001; 김형태, 2004).

남한사회 적응에 가족의 지지가 주요 변인이 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더불어 교우관계이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 차이만이 아니라 컴퓨터용어, 채팅용어, 방송용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친구들과의 대화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이수연, 2008: 107). 특히, 일반 공교육기관에 다니는 문화적응 정체감 수준이 낮다. 즉, 주변화유형을 보이는 데 이는 새로운 문화만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에서도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금명자·권혜수·이희우, 2004: 305). 소외감, 열등감,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은 폭력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길은배·문성호, 2003). 박윤숙(2006)도 사회적 지지 특성들이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사회적 지지망 구축,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법적 후견인 제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들은 교우관계에서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 정체성 노출을 꺼리는 경향은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높게,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영향보다는 환경적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만길 외, 2009).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김신희(2012)의 연구에서도 탈북청소년 2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9%(106명)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4. 적응에서 통합으로

심원(2006)은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정체성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정체성 교섭의 일환으로 ‘한민족-정체성’을 통해 북한사람, 남한사람이라는 구별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 실패하였다고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이런 경험들 때문에 같은 민족을 차별대우하는 남한사람들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감정들이 한국보다는 중국을 적합한 최종 정착지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시기의 발달과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체성 형성이라고 할 때 탈북청소년 스스로가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사회통합방식을 접근해갈 때 과연 한국사회, 남한청소년들은 통합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탈북청소년들의 적응, 탈북청소년들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와 선입관 또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이정우(2006)는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사회의식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사회의식은 북한 특성보다는 남한의 청소년과 유사하며, 부와 가난의 이유를 오히려 남한 청소년보다 개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았다. 평등에 대해서도 남한청소년보다 남한이 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청소년이 사회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은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박정서(2011)의 연구에서도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정치적 태도를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탈북청소년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이 모두 높은 ‘충성’적 정치성향을, 남한청소년은 정치효능감과 신뢰감이 모두 낮은 ‘소외’의 정치성향을

나타냈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탈북청소년이 남한청소년과 비교할 때 정치효능감이나 신뢰도가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탈북청소년의 정치적 태도가 남한 거주기간이라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북한에서 정치사회화보다 남한에서 재사회화의 중요성이 밝혀진 것이다. 전체적으로 탈북청소년의 정치경제적 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탈북 청소년의 의식은 북한사회의 영향을 받아 강한 사회주의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겪은 경험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김신희(2012)는 탈북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정치사회화 경험은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가장 긍정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탈북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치통합을 통한 내적 통합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탈북청소년과의 통합을 위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정향진(2005: 106-107)은 남한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감정 규범의 차이를 통해 다른 사회화과정을 거친 탈북청소년의 감정을 ‘후진성’의 징후로 보는 것보다는 남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에 대해 반성적 시선을 던지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감정이라는 개인적 표현을 역사적, 사회적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탈북청소년을 이해하고자 함과 동시에 동화가 아니라 통합을 전제로 하는 이해와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

II. 탈북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정책마련에의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결국,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즉, 탈북청소년의 실태, 이해, 적응, 재사회화의 가능성과 관련된 많이 중복된 상태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정책과 통합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연관성을 찾고 구분되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까지 시기적으로 적응에 초점을 둔 정책이었다면 통합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적응을 위한 정책이 통합을 전제로 하는 방향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적응과 동화, 통합의 개념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제까지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통합을 위해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통합을 위한 정책마련 또는 정책수정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과의 통합지원 방안이 모색되었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연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탈북청소년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지 즉, 탈북청소년과 더불어 탈북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과 일반학교의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통합을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통합을 전제로 그 이유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회구성원을 통해 점검을 해야 한다.

넷째, 탈북청소년과의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의 준비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탈북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탈북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탈북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탈북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이기도 하지만 같은 민족,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 탈북, 남북한을 잇는 가교 역할, 통일교육을 위한 토대마련 등의 특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 정책 속에서 탈북청소년 정책은 어떻게 차별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디딤돌, 전환기 역할로써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디딤돌, 전환기로서의 역할이 퇴색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곱째, 일반학교의 구성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청소년을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동료로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금명자·권해수·이희우(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및심리치료**, 제16권 제2호, 한국상담심리학회.
-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정병호·김찬호(2008).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Ⅲ: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신희(2012).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나(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숙(2006). 탈북청소년 학교적응교육을 위한 과학교 교수·학습모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숙(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서(201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하나(2007).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탈북 청소년의 경험 이해: 초입 중학생의 평가 경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 외(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승희(2010). 북한이탈 청소년 전환교육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원(2006).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명도 외(2008).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기영(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수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1호.

- 한국청소년학회.
- 이순형(2007).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정우(2006).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 연구: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주·김도혜·윤상석(2010).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심층연구: 학교 밖 탈북청소년 이야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향규·이강주·김윤영·한만길·김성식(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진경·정병호·양계민(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2호**. 평화문제연구소.
- 정향진(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집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 최경자(2008). **새터민학생의 학습적응력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학교 외적으로 접근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알맞은 학습적응력에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밝히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한만길 외(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 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MEMO

MEMO

MEMO

탈북청소년 연구 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인 쇄 2013년 4월 8일

발 행 2013년 4월 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